

지역 메아리

김제시 신규 사업 발굴 회의

김제시는 15일 지자체 연계협력을 통한 새로운 지역발전모델을 만들기 위한 신규 사업 발굴 회의를 개최하였다.

전북도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전북 연계협력형 지역계획수립 연구 용역은 지방의 인구 과소화, 저성장의 고착화에 대한 대응으로 전북 해안권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자체 연계중점사업을 발굴하게 된다.

김제시는 이 용역의 대응으로 관련 사업 담당 19개 부서 31개 담당 회의를 개최하여 사업 개발의 중점 및 착안 사항, 협조 사항 등 전담 및 사업 발굴에 대한 의견 공유를 하는 등 사업 발굴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완주군이 78억원에 달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공모한다.

15일 완주군은 5월 말까지 2019년 예산 편성을 위해 78억5000만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공모를 받는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완주군민이면 누구나 3000만원 내의 사업을 제안할 수 있으며 공모분야는 군 단위 정책사업과 읍면단위 지역사업이다. 단, 대규모 사업이나 보조사업, 행사성 경비 등은 제외된다.

군 단위 정책사업은 일자리·문화·예술·관광·사회복지 등 군정사업과 관련된 군 정책분야와 청년 권익증진·교육·소통·활동 분야 등을 지원하는 청년분야,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을 육성하기 위한 아동청소년분야 3개 분야로 나눠 접수 받는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복지리더 공감소통 워크숍

완주군이 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2018 완주군 지역복지리더 공감소통' 워크숍을 개최했다.

15일부터 시작해 16일까지 충남 보령 비체펠리스에서 진행되는 지역복지리더 공감소통 워크숍은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담당 공무원 50여명이 참여해 소통과 협력강화의 기회를 마련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워크숍 주제인 '지역복지리더 공감소통'에 맞는 민관 협력 체계 토대를 마련하고 향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 주민의 복지지수 향상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짐했다.

워크숍에 참여한 위원들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서로를 알고 소통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 됐다"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과 민관협력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산업단지 활성화 · 투자유치 촉진

완주군, 투자유치 협의회 발족... "지역산업 재검토 필요" 의견 대두

완주군이 향후 완주군 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기관들과 머리를 맞댄다.

15일 완주군은 향후 완주군 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업, 연구기관, 학계, 행정기관 등 관내 다양한 분야의 기관들이 참여한 '완주군 투자유치 협의회'를 발족했다.

완주군 투자유치 협의회는 지역산업의 성장발전과 2018년 5월 대규모 산업용지분양을 앞둔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의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LS엘트론, 대주코레스, 완주산단진흥회, 전북부동산산업연합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전북분원, (재)전북테크노파크,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우석대학교등 관내 15개 기관의 중간 관리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협력 네트워크다.

이날 첫 만남 자리를 가진 협의회는 기관 간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유대를 강화하고, 최근 급변하는 도내 정세에 따라 완주군 산업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또한 향후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집중적인 투자 시급하다는 공통의 과제를 도출했다.



완주군이 향후 완주군 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기관들과 머리를 맞댄다.

다. 이외에도 최근 국내의 투자동향에 대한 분석과 완주군 투자유치 방향, 이를 위한 기관 간 협력방식 등 완주군 산업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됐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고재욱 완주군 부군수는 "지역기업의 성장과 산업발전은 우리 모두의 숙원임과 동시에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공통의 과제이다"며 "완주군 투자유치 협

의회에 참여한 기관들의 다양한 현장 경험과 상호 소통을 통해 현실적인 대안들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주군 투자유치 협의회는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만남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협의회를 활성화 하고, 참여 기관 및 기업도 다양하게 확대해 완주군 산업 발전을 위한 견인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 LH,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혼부부 대상, 30일까지

김제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세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한다.

김제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8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에 범위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

를 임대대상자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올해 김제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공급대상은 12호이며 지원한도액은 8,500만원까지이며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중 지원한도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5%만 납부하면 된다.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 1~2%이자 해당액을 부담하면 된다.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이후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18년 2월 28일) 현재 김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18년 내 입주일 전까지 혼인 신고하는 예비신혼부부포함)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가구는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LH청약센터 (https://apply.lh.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공사 홈페이지(www.lh.or.kr) 모집공고를 참고하거나 김제시 건축과 주택행정담당 (063-540-3806) 또는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좋은이웃들' 우수 수행기관 선정

김제시사회복지협의회,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수상

사회복지법인 김제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최병철)는 15일 제주도 난타호텔에서 열린 '제6회 좋은이웃들 전국대회'에서 우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좋은이웃들 사업은 화장실 3남매, 송과 3모녀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없도록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이 나서 복지소외계층을 찾아내어 공적서비스 또는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민·관 협력사업으로 2012년 전국 30개소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100개소의 시·군·구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번 우수수행기관 보건복지부장관표창을 수상한 김제시사회복지협의회는 2014년 '좋은이웃들' 발대식을 시작으로 김제시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복지소외계층을 발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김제시통합사례관리네트워크에 가입된 35개소 민·관사회복지 기관·시설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루어가며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최병철 김제시사회복지협의회장은 "좋은이웃들 봉사자는 가가호호 모르는 곳이 없을 정도로 지역사회 실정에 아주 밝은 분들이며, 이들을 통해 좋은이웃들이 사회복지 참여자로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면 복지사각지대는 효과적으로 해소되고 김제시민의 복지에 대한 만족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소외된 우리 이웃지킴이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벽골제관광지, 4월 1일부터 입장료 징수

김제 벽골제관광지는 '농경문화'라는 차별화된 컨셉으로 지속적인 개발을 추진하여 관광지로서 면모를 갖추었고 지평선 축제를 통하여 많이 알려지면서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농경문화의 산실이 되었다.

김제시는 한 차원 높은 관광욕구의 충족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오는 4월1일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계획이다. 김제시는 입장료 징수에 따른 조례 제정과 담장을 설치하였고 매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광객 맞이에 민간의 준비를 하고 있다.

입장료는 1인당 어른 3,000원, 청소년 2,000원 어린이 1,000원이며, 단체 관람객(20인 이상)일 경우 1인당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는 500원을 징수할 예정이다.



특히 김제시민과 명예시민, 6세이하의 영유아, 65세 이상인 사람, 국가유공자 및 유족, 독립유공자, 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무료로 입장을 원하는 관람객은 관련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야 한다.

관람시간은 하절기(3월~10월)는 9시부터 18시이며, 동절기(11월~2월, 11월~12월)는 9시부터 17시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  
교통캠페인